

아이코노그래피 차원의 미니멀리즘 경향과 해체적 실험성  
표현 유형 연구

A Study on Minimalistic Symbolism and Deconstructive Experimentalism as  
Iconographic Entities

신석규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 강사

**Shin seok-kyu**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2. 이론적 고찰

- 2-1. 미니멀리즘과 모던 디자인
- 2-2. 해체주의의 형성과 배경

## 3. 시각커뮤니케이션의 미니멀리즘과 해체주의

- 3-1. 절제의 미학과 미니멀리즘의 조형성
- 3-2. 포스트모던 현상과 해체주의 디자인

## 4. 아이코노그래피 차원의 심볼마크 표현

### 유형 및 체계화

- 4-1. 미니멀리즘 경향
  - 4-1-1. 절대형(形)의 순수
  - 4-1-2. 단일체의 변화
  - 4-1-3. 동일형(形)의 반복
  - 4-1-4. 사물의 본질적 표현
- 4-2. 해체적 실험성
  - 4-2-1. 탈의미(post-signifiante)
  - 4-2-2. 탈형태(post-form)
  - 4-2-3. 탈구조(post-structure)

## 5.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21세기 사회, 문화적 환경은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미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심볼마크의 흐름은 과거에는 조형적 단순화 경향을 보이며, 컴퓨터가 등장한 최근에는 디지털 이미지를 비롯한 아날로그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표현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유분방한 선과 형태로 구성된 포스트모던적 경향과 탈의미, 탈형태, 탈구조로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경향의 실험적 심볼마크가 보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가지 경향에서 한 축은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만을 표현했을 때,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미니멀리즘이며, 사물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해체주의적 실험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각각 상반되는 형식을 개념화하고 사례들을 분류하여 체계화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심볼마크 조형성 분류체계는 미니멀리즘 경향에서 절대형(形)의 순수성, 단일체의 변화, 동일형(形)의 반복, 사물의 본질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체적 실험성은 탈의미(post-signifiante), 탈형태(post-form), 탈구조(post-structure)로 구분하고 각 세 가지의 세부 하위체계를 두어 보다 면밀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분류체계의 각 항목은 미니멀리즘의 조형성과 데리다의 해체주의 구성 원리에 연구자의 견해를 접목한 부가적 의미를 더하여 개념을 정립했다. 분석의 틀은 포지셔닝 맵과 척도법을 응용한 'pie positioning map'을 통하여 국·내외에 발표된 심볼마크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류를 체계화했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통해 미니멀리즘 경향의 심볼마크는 함축성과 상징성을 위해 단순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대응적 개념으로서 실험적인 해체적 심볼들은 형식적 틀을 거부하는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현실적으로 커뮤니케이션되는 과정에서 본질의 왜곡이 아니라 의미 해석의 확장 형태 유회를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했다.

심볼마크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더라도 본질적인 생명력을 지니며 전달하고자 하는 수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인지되고 인식의 과정에서 의미 해석에 자율적 기반을 제시하고 해석의 유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미니멀리즘적 단순화와 해체적 실험성의 개념과 분류체계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창조적 방법론으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도상,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심볼

###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cultural environment along with the appearance of digital mediums brought upon great change and ameliorated the quality of images in visual communication. The symbol of identity design in the past showed a tendency to be simplified in terms of form. However, with the advent of digital mediums, various symbols of expressions appear especially the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a deconstructive form, representing a free use of lines and forms to express a post signifiante, post-form, and post-structural type of expression. The two types of tendencies minimizes the artistic techniques and dramatization of the artistic expression, and expresses only the bare necessities as

the essence of an object, and realizes true reality through this type of minimalism and provides a new perspective with a experimental yet deconstructive method. As a result, each corresponding form becomes conceptualized, and each classification becomes increasingly structured.

The symbol of identity design can be classified by the minimalistic tendencies of the pure expression of absolute form, the expression of the essentials, the repetition of forms of identity, and the expression of what substantiates form. The deconstructive experimentation can be hierarchically classified into post-signifiante forms, post-form, and post structures, which births a more elaborate and intricate classification system. Each level of classification integrates the form of minimalism and the Derrida deconstructive composition principle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earcher to establish meaning and concept. The tools used to analyze, and classify the symbols express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y type are the pie positioning maps, along with the positioning maps that implement an indexed and gauged standard. Through this type of systematic classification we are able to conclude that the symbols expressed with the tendencies of minimalism need to be simplifi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expression and symbolism, while at the same time, as a corresponding concept, an experimental deconstructive symbol must reveal an affinity to reject conventional framework to reveal a variety of expressions while realistically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expansion of analysis and meaning, and the freedom of form, not the distortion of the essence of what is to be expressed. Whatever the symbol may be designated to express, the symbol must retain essential vitality, and must be efficiently expressed to the desired recipient, while providing a platform for liberal analysis during the processes of achieving expression of the form in question.

In conclusion, the minimalistic simplification, the concept of deconstructive experimentation, and hierarchic classification can recapitulate a creative methodology of identity systems that correspond to the digital age of today.

#### **Keyword**

iconography, minimalism, deconstruction, symbol

## **1. 서론**

### **1.1 연구목적**

인류사회의 변화의 핵심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구의 출현이었다. 도구가 시대적 환경에 맞게 개발되고 사용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전환기를 맞이하는 역사를 되풀이해 오고 있다. 지식기반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도구는 컴퓨터의 출현이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다. 컴퓨터의 등장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시각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있어서도 디지털화된 이미지의 출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다량의 정보가 공유되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생활하는 정보화 세대의 확대 등은 인류를 디지털 인간형으로 바꾸어 놓았다. 디지털 매체가 이미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아날로그 시대에 가능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고 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심볼마크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조형적으로 단순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최근의 사례에서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들이 등장한다. 특히 자유분방한 선과 형태를 표현하는 포스트 모던적 경향과 탈의미, 탈형태, 탈구조로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경향의 실험적 심볼마크가 보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단순화의 경향, 즉 미니멀리즘적 경향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니멀리즘 경향과 해체주의적 심볼들을 조사하여 각각의 체계를 세우고 표현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가 심볼마크는 함축성과 상징성을 위해 단순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응적 개념으로서 실험적인 해체적 심볼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해체적 심볼은 형식적 틀을 거부하는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현실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되는 과정에서 본질의 왜곡이 아니라 의미 해석의 확장과 형태의 유희를 보여주는 흥미있는 표현양식을 검증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미니멀리즘과 해체주의 이론에 대한 고찰과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미니멀리즘 경향의 디자인과 해체주의적 실험성을 표현한 예술작품들을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시각 커뮤니케이션과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형태 또는 심볼마크의 분류방법에 대입하여 표현 유형을 개념화 하고 분류체계를 수립한다. 분류의 체계는 체계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각 유형별 분류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pie positioning map'을 개발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는 미니멀리즘 경향의 심볼과 해체주의적 심볼의 지각적 차이나 우월성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시각 표현의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한정하지 않고 미니멀리즘 경향과 해체적 실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분류체계에 대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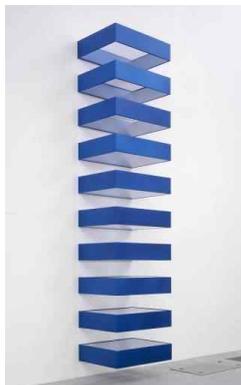
## 2. 이론적 고찰

### 2-1. 미니멀리즘과 모던 디자인

미니멀리즘이란 용어는 평론가인 바바라 로즈(Babara Rose)가 1960년대 중반기에 집필한 글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1965년 10월호 '아트인 카메라'에 실린 로즈의 논문 제목인 'abc아트'는 이름으로 정착하지 못했으나, 이 논문에서 최초로 단순화된 미술을 미니멈(minimum)으로 자칭했고 1960년대 말에 미니멀리즘(minimalism)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만을 표현했을 때, 현실과 작품과의 괴리가 최소화되어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미니멀리즘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시각 예술 분야에서 출현하여 음악, 건축, 패션, 철학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미의'라는 minimal에 'ism'을 덧붙여 1960년대에 등장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대상의 본질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최소한의 색상

을 사용해 기하학적인 뼈대만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의 미술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미술이론가이기도 한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sup>1)</sup>, 칼앙드레(Carl Andre),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등이 있다.



[그림 1] 도널드 저드, Untitled,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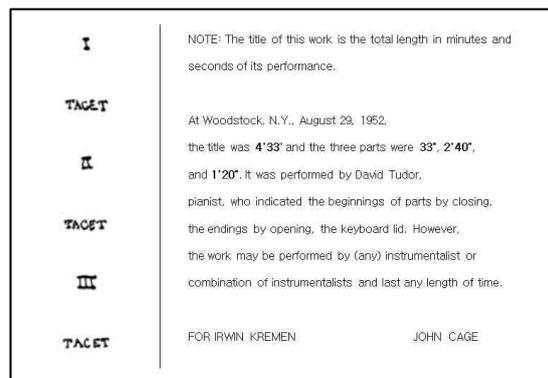
1) 미국의 미니멀아트 미술가·이론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수한 오브제'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 오브제를 캔버스의 표면과 형태, 색채의 본질적인 단위로 간주하였다.

음악에서의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필립 글래스(Philip Glass 1937~ )<sup>2)</sup>의 단조롭고 반복적인 합주곡처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박자에 반복과 조화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는 1952년 독일 현대음악제에서는 '4분 33초'라는 작품을 발표, 음악에 우연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유럽 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우연성이나 불확실성은 작곡기법의 하나로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그림 2] 필립 글래스의 단순한 반복적 리듬의 악보



[그림 3] 존 케이지의 '4분33초' 악보와 설명

건축디자인 분야에서는 소재와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루드비히 미스 반 데에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는 "적은 것이 많은 것 (Less is more)"이라는 유명한 모토를 받아들여 매우 단순한 인상을 주는 많은 수의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최대한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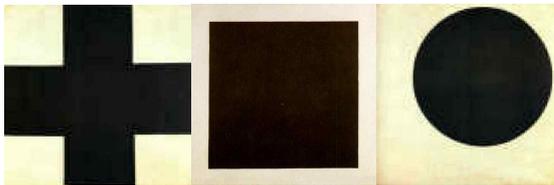
2) 미국의 작곡가. 1960년대 후반 뉴욕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의 음악은 단조롭고 반복적인 구조의 미니멀리즘적인 요소가 특징이며, 혁신적인 기악곡과 오페라 등을 작곡하고 있다. '사티아그라하', '항해' 등의 작품이 있다.

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미니멀리즘은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장식적인 디자인을 가능한 제거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나 직선적인 실루엣의 선정적인 옷, 또는 최소한의 옷으로 훌륭한 옷차림을 연출하는 방법 등이 모두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보여준다.

서구 미술에서의 고전주의 정신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과학의 발전에 따른 이성적 인식의 급속한 확장에 힘입어 입체주의로 발전되고, 그 연장 선상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결합한 구성주의와 데스틸(De Stijl)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된다.

이는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1878~1935)<sup>3)</sup>와 타틀린(V. Tatlin)에 의해 주창된 절대주의로 대표된다. 이들의 절대주의는 공산주의 초기단계로서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한 절대주의의 호소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 전위 미술운동, 즉 신 정신(Esprit Nouveau)과 바우하우스에 전폭 수용되었다.



[그림 4] 카지미르 말레비치-black cross, black square, black circle

## 2.2. 해체주의의 형성과 배경

### 2-2-1 해체주의의 발생

탈구축(脫構築)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데리다는 지금까지의 서유럽의 전통적 형이상학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 사상의 축(軸)이 되었던 것을 모두 상대화(相對化)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상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 경우에 먼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존재하는 '전체성(全體性)'이라는 사고방식이고, 그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신(神)이라는 궁극의 존재를 지주(支柱)로 하는 서구의 '전통적 형이상학'이다.

이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해체주의는 서구사상의 근저(根底)에 관계되는 어려운 작업이어서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체의 대상은 사물과 말(언어), 존재와 표상(表象), 중심과 주변

등 형이상학적 사고에 의하여 지탱되어 온 모든 이원론의 입장을 모두 새롭게 고쳐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미의 불확정성을 비롯한 일종의 혼란 상태가 된다.

데리다의 사상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며, 롤랑 바르트(Barthes:1915~1980)나 미셸 푸코(Foucault:1926~1984)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서구사상에 대한 상대화의 시도를 계승한 것이고, 통일적인 것을 거부하여 리즘상(狀)의 것, 유목민적인 운동을 사상에서 구하는 질들뢰즈(Deleuze:1925~1995) 나과타리(Guattari:1930~)의 사상과도 연동(聯動)한다.

18세기에 현대를 문제 삼는 최초의 철학자 헤겔은 '절대이상', 마르크스는 '총체성'이란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반면, 니체는 물이성적, 반이성적 영역이 존재하며, 오히려 이 영역이 인간의 삶에 본질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하이데거, 푸코, 데리다는 포스트모던(Post modern)으로의 진입을 이끈 선구자 니체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니체-하이데거-데리다의 계보를 이어 받은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탈 이성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 2-2-2 해체주의의 형성 배경

1960년대에 널리 확산된 이념은 구조주의이다. 이 구조주의는 자아나 주체, 개인 사유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전체적인 구조만을 중시, 개체를 전체에 종속시키고 구조가 개체에 대해 특권을 부여받는 존재가 되어서 이분법적 사고가 되는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구조주의에서의 구조는 언제나 하나의 중심, 고정된 원리, 의미의 위계질서와 확고한 토대를 가정하는데, 탈구조주의-해체주의는 혼란스러웠던 1966년의 프랑스에서 사회참여에 좌절한 실천적 사회주의학자들이 사회변혁의 한 방법으로서 언어연구를 통한 그들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현실에 대한 회의'가 인간사상의 기초형식인 언어를 회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애매모호한 언어를 해체하게 되었다.

해체주의는 고전적 구조주의가 즐겨 사용하던 '이원적 대립관계들이 이데올로기의 특유한 사유방식'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허용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아와 비 자아, 진리와 허위, 의미와 무의미, 이성과 광기, 주변과 중심, 표면과 심층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긋는다. 구조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부상하기 시작한 포스트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 내부에서 해체되고 탈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라는 사조 내의 구체적인

3) 러시아의 화가. 추상예술의 개척자다. 러시아의 전위파(前衛派) 시인들과 친교를 맺고, 쉬프레마티슴(절대주의)을 주창했다. 기본 형태에 의한 추상예술을 이론화해 쉬프레마티슴이라 이름 짓고, 1915년 선언문을 작성했다.

인 하나의 이론으로 푸코와 데리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 3. 시각커뮤니케이션의 미니멀리즘과 해체주의

#### 3-1. 절제의 미학과 미니멀리즘의 조형성

절제(節制,temperance)의 사전적 정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또는 '방종(放縱)하지 아니하도록 자기(自己)의 욕망(欲望)을 이성(理性)으로써 제어(制御)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말이다.

절제는 극소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의 공통적인 조형적 경향은 단순성, 단일성, 반복성, 사물성, 순수성 등의 표현적 특성이 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단순성(單純性, geometric & cubic forms)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고, 이미지와 조형요소를 최소화한 기본적 구조를 가진다. 이는 형태의 본질적 문제를 거론하며 부분이 아닌 전체를 암시한다. 그리고 원형이나 정육면체 등의 단일입방체들은 크기, 색의 사용 등 극도의 단순함을 추구한다.

##### 2) 단일성(單一性, equality of parts)

내적 구성을 거부한 비 내부성, 일체화된 단일한 형태, 특색 없는 단색적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 3) 반복성(反復性, repetition)

사물 또는 요소 간의 계층적 관계를 형성치 않고 반복적 배열, 이미지의 반복, 반복이나 연속의 관계에서 질서는 내재적이거나 이성적 질서가 아닌 단순한 질서이며 연속성의 관념으로 차례대로 제시한다.

##### 4) 사물성(事物性, neutral surfaces)

물질의 본질 추구, 비 관계적 구성에 의한 소재의 중성적 특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 5) 순수성(純粹性, purity)

본질적으로 이미지나 수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것에 관심을 표명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순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대상의 원천적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일 색채, 단순한 형태, 단일 소재의 성격을 강조한다.

#### 3-2. 포스트모던 현상과 해체주의 디자인

##### 3-2-1. 포스트모던 현상

포스트모더니즘은 확일적으로 규정짓고 통제하는 전체적 사고방식을 배제하고 비판한다. 절대 개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고, 다원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

을 바탕으로 권위적 허구성의 해체를 일차적 특성으로 한다. 즉, 수많은 담론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연구가 이합합산이 1987년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에 관하여 '포스트 모던한 전망 속의 다원주의'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현상성을 설명하고자 한다.<sup>4)</sup>

첫째, 불확실성(Indeterminacy)으로 개방성과 해체, 무작위성, 임의성, 다원성 등 확정적이지 않은 이론들을 포괄하며 특정한 체계를 벗어난다.

둘째, 단편화(Fragmentation)로 종합의 부분적 단편화가 아닌 주체적 단편성을 말한다. 사회적, 인식론적 종합을 거부하고 총체성을 거부하며 차이와 변증을 따른다. 은유와 환유가 중요시되고 역설, 배리(背理), 병렬, 결합이 등장한다.

셋째, 탈경전화(Decanonization)로 서구의 전통적 규범에 대한 도전의 성질을 나타낸다. 기존의 형이상학적 진리, 이성 등을 거부하고 대중의 참여와 비평을 유도한다.

넷째, 재현불가능성(Unrepresentability)으로 반리얼리즘, 초현실주의로 나타난다. 장르의 붕괴, 현실의 모방 거부, 예술 고유의 재현 등 본질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재현을 통하여 새로운 재현을 추구한다.

다섯째, 혼성모방(Hybridization)으로 한계 극복 현상으로 장르가 붕괴하고 혼합되는 성격을 의미한다. 풍자적 조롱, 희화화한 모방 등을 통해 허구와 사실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지속과 단절,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현재 속에서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확장시킨다. 현재와 현재가 아닌 것,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동시성을 획득하게 된다.

여섯째, 대중주의(Populism)로 기존의 관념을 깨고 대중적인 것에 대한 의식변화를 촉구한다. 공산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조시킨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레디메이드(Ready-made)<sup>5)</sup>이론과 캠벨스프강통, 마를린 먼로, 슈퍼맨 만화 등 대중적 사물을 이용한 혼성 모방 기법을 활용한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 등의 팝아트도 그 중 하나이다.

일곱째, 행위(Performance)와 참여(Paticipation)로

4) 이합 합산, '포스트모더니즘-현대문화와 문학이론', 정정호, 이소영 역, 한신문화사, 1991, pp433~443

5) '기성품의 미술작품'이라는 의미이며 뒤샹이 처음으로 창조한 미술 개념. 그에 의하면 레디메이드, 즉 기성품을 그 일상적인 환경이나 장소에서 옮겨놓으면 본래의 목적성을 상실하고 단순히 사물 그 자체의 무의미성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행위와 대중의 참여는 예술의 변화를 촉구한다. 기존의 틀에서 통제의 틀을 깨고 나올 때 우연적 작용과 과정을 중요시한다.

여덟째, 보편내재성(Immensity)으로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호의존을 통해 개념들 속에서 가치관의 공통적 속성을 통해 보편화 경향을 찾아내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적 근거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작품 의도를 담고 작품의 내용은 물론 작품의 외적인 요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5] 마르셀 뒤상-Spring, Bicycle Wheel



[그림 6] 앤디 워홀-타임지의 마이클 잭슨과 마블린 먼로 1967



[그림 7] 로이 리히텐슈타인-Happy Tears ,Hopeless

### 3-2-2. 해체주의 디자인

해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디자인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원칙과 과정을 고집하지 않고 표현된다. 이는 언어나 기호, 상징성 등을 다양한 암시와 상상력, 은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시대의 새로운 표현 언어와 열린 사고로 디자인 표현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의 표현은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의

태동을 의미한다. 해체주의 디자인이 양식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해체’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사물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여기서는 형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에 내재하는 구조나 개념을 가시화시킨다. 고정화된 근본을 혼란시키는 것이며 통합 대신 해체, 동일 대신 분리, 추상 대신 개념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체적 디자인의 시각적 특성은 시각적 구성에 있어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독특한 표현 테크닉으로 과장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한다. 전통적 색채 조화의 파괴, 과장, 불가사의한 표현, 비주얼 스퀄들, 몽타주와 꼴라주, 기존의 관념을 탈피하는 레이아웃 등 독특한 테크닉으로 모호성을 드러냄으로써 차별화를 유도한다. 오늘날 시각커뮤니케이션 문화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컴퓨터의 보급, 인터넷 문화의 발전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표현 영역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매체에 있어서 이미지와 텍스트는 기존의 평면적이고 정적인 부분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도입하였다. 이는 시각적 효과와 표현영역의 확대라는 의미 이상의 것들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키네틱 아트(Kinetic art)가 제시되었다.

또한, 해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소외되었던 ‘형태’의 의미를 부가시킨다. 기존형태를 단편화하거나, 단순한 형태를 변형, 중첩, 회전, 전치시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에서 형태의 유희 작업으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해체주의 디자인에서 공간적 사고는 순간성의 인식론적 흐름에 의한 시간적인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파편화된 이미지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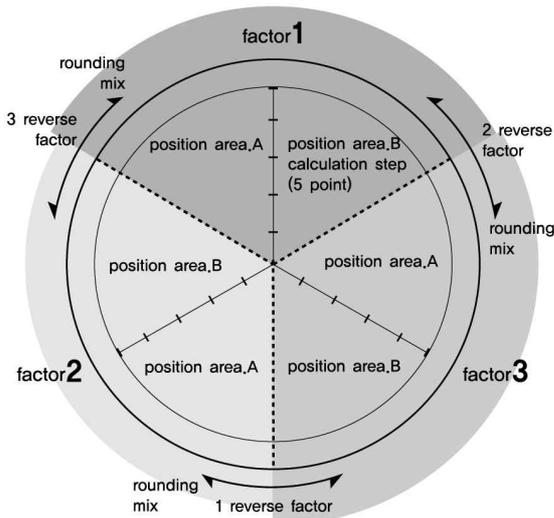
### 4. 아이코노그래피의 표현 유형 및 체계화

본 연구에서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심볼마크를 광의의 개념인 형태로 규정짓고 아이코노그래피 차원으로 연구의 토대를 세웠다. 이는 절대형인 원, 사각형, 삼각형부터 탈의미, 탈구조, 탈형태까지 광범위하게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분류체계는 미니멀리즘 경향에서 4가지의 유형을

6) 도상학(圖像學, iconography) 그리스어의 에이콘, 즉 이콘(이미지,像 등의 뜻)에서 유래한 말로 상징성·우의성(寓意性)·속성 등 어떤 의미를 가지는 도상을 비교하고 분류하는 미술사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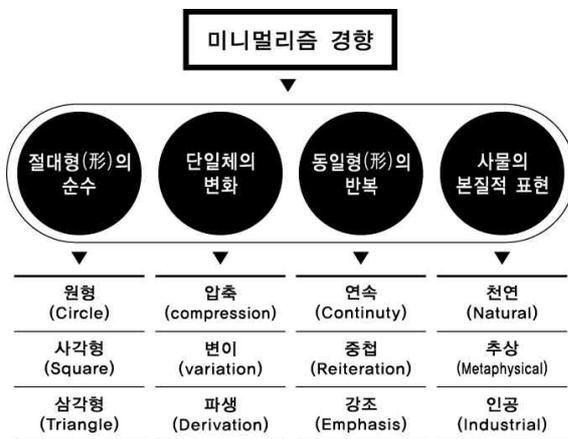
세우고 각각 3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했다. 해석적 실험성은 3가지의 유형에 3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분류구조의 체계를 확립했다. 분류체계에 따라 사례들을 수집하여 각 유형별로 디자인의 표형 유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다음 단계로 5점 척도법과 X, Y 축을 활용하는 포지셔닝 맵을 응용 발전시킨 'pie positioning map'을 개발하여 분포도를 통하여 집적도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림 8] Pie Positioning Map 구조도

#### 4-1. 미니멀리즘 경향

미니멀리즘 경향의 분류체계는 단순성, 단일성, 반복성, 사물성, 순수성 등의 미니멀리즘의 표현적 특성과 관계되는 내용적 성향을 일차적으로 고찰하였다. 분류체계의 근본적 개념을 위해 단순성, 단일체, 순수성, 사물의 본질이라는 절대 명제를 추출하고 절대형의 순수성, 단일체의 변화, 동일형의 반복, 사물의 본질적 표현의 네 가지로 분류 체계를 세웠으며 하위 구조에 각각 세 가지의 표현방법을 구분 짓는 요소를 대입하여 체계화하고 사례를 분류하였다.



[표 1] 미니멀리즘 경향 분류 체계도

#### 4-1-1. 절대형(形)의 순수

절대형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원, 사각형, 삼각형은 그 자체로 서술적 의미를 전달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나타낸다. 절대적 형태의 서술성은 인류의 문화사적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 오랜 시간 전승되어온 형태에 대한 상징은 인류사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구성하는 중심적 모티브가 된다.

형태는 하늘과 땅, 이상과 현실, 유(有)와 무(無), 유한성과 영원성, 자연과 초자연에 대한 개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순수성을 전제로 한다. 형태를 다루는 것은 형태의 구성이나 내면적 자기표현으로 감정과 사상이 조형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절대형의 순수성에서 기본적인 형식의 요소는 점, 선, 면이 되고 순수형태로서 원형, 사각형, 삼각형이 된다. 입체적 요소는 원, 원통, 육면체 등이 되며 현실적 형태와 대립하는 동시에 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는 형태의 구성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단위가 되며 그러한 단위가 집합되거나 분할, 확대, 축소, 변형 등의 조작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낸다. 반대의 개념으로 현실적 형태의 속성을 버리고 남는 형식인 순수형태. 즉 원형, 사각형, 삼각형은 현실적 형태를 구성하는 원천적 요소이며 형태 표현의 기초가 되는 순수성을 가진다.

##### 1) 원형(圓形,circle)

피타고라스(Phytagoras)는 '원을 모든 단위의 기본으로 삼았고 모든 만물은 반경이 똑같은 원의 규칙적인 배열로 이루어지며 신(神)의 상징'이라고 했다. 원은 기하 곡선의 주체이며 순환적이며 운동감을 준다.

원형의 선은 시작과 끝의 위치 추적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된다. 우주를 연상시키고 확장된 영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된 의미를 암시한다. 그리고 원형은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서 무결점의 순수성을 갖춘 절대적 위치에 존재**한다.



[그림 9] 절대형(形)의 순수 '원형' 심볼마크 사례

##### 2) 사각형(四角形,square)

사각형은 그 자체가 조형에서 **완전한 하나의 공간 개념을 의미하며 상징적 질서를 나타낸다.** 네 각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조형의 구조적 요소로서 기초적 형태를 이룬다. 보는 사람의 시선을 위, 아래, 그리고 대각선으로 유도한다. 따라

서 사각형은 정보를 전달할 때 시선의 범위를 가장 넓게 확장시킨다. 수평, 수직적이며 끝없이 반복되는 직각(直角) 운동으로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향하는 사각형은 긴장된 동세(動勢)를 느끼게 한다.



[그림 10] 절대형(形)의 순수 '사각형' 심블마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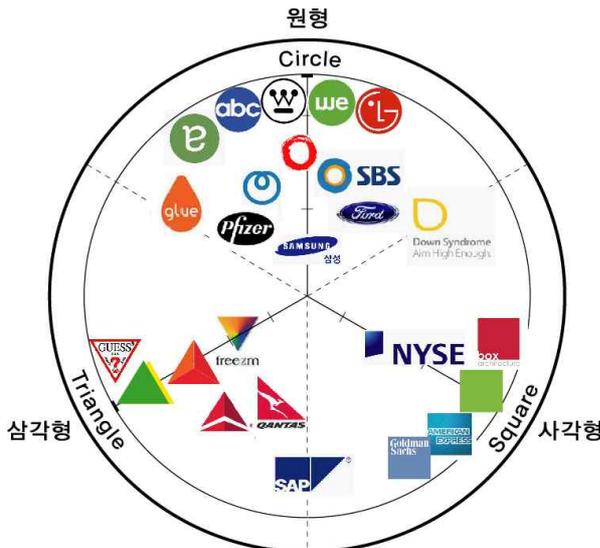
### 3) 삼각형(三角形, triangle)

삼각형에서는 각도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는 사선(斜線)적인 특징을 가진다.

시선을 확장시켜 다양한 모양이 있는 듯한 암시를 준다. 세 개의 점 중에서 맨 위의 점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점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삼각형은 한정된 영역을 암시하고 마치 큰 덩어리의 형태가 변형되어 만들어진 느낌을 준다.



[그림 11] 절대형(形)의 순수 '삼각형' 심블마크 사례



[그림 12] Pie Positioning Map\_절대형(形)의 순수 분포

#### 4-1-2. 단일체의 변화

기하학적인 단순한 하나의 형태를 단일체로 보며 이 단일체가 최소화한 조형요소로 근원적 구조를 나타낸 것을 변화라 한다. 이는 형태의 본질적 문제를 거론하며 부분이 아닌 전체를 암시하게 되므로 변화가 되어도 단일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기본형의 크기, 색의 사용 등 극도의 단순함을 추구하며 일체

화된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1) 압축(壓縮, compression)

단일체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흩뜨려 놓는 방식에 비해 압축은 다의성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시각적 형태 인식은 쉽고 명확하게 전달된다. 다의성을 보여주는 결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단순한 형태로 압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체의 압축은 결합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만을 나타내게 되는 방식으로 조형적 경제성을 갖는다.



[그림 13] 단일체의 변화 '압축' 심블마크 사례

#### 2) 변이(變異, variation)

변이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종의 생물 개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을 말한다.

모든 생물의 종(種:species)은 서로 비슷한 모양을 가지며 자신과 닮은 모습의 산물을 남기게 되는데 근원적 토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개체 간의 서로 다른 특성을 변이라고 한다.

단일체의 변이는 하나의 단일체가 변화해 가는 일종의 과정 및 단일체의 변화된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변이된 형태는 각각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원천적 개념과 단일체의 기본적 형태 개념은 유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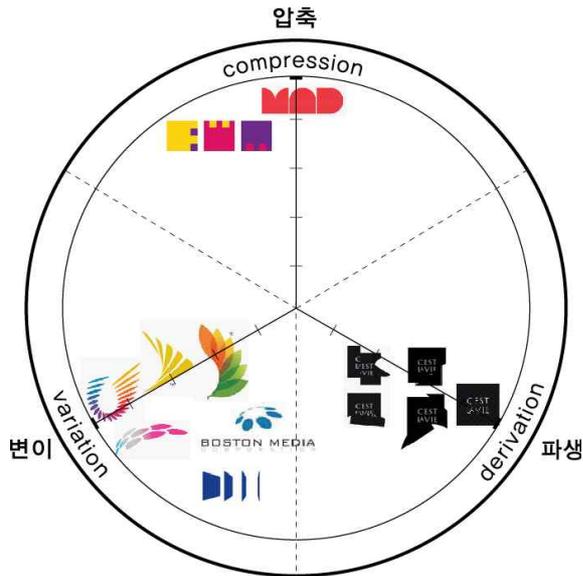
[그림 14] 단일체의 변화 '변이' 심블마크 사례

#### 3) 파생(派生, Derivation)

파생은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기는 것을 뜻한다. 파생적 심블마크는 단일체에 추가적인 개념과 시각적 형태가 부가되거나 결합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나타난 심볼에서 단일체의 근원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만을 나타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며 파생화의 시각적 암시 또는 유희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림 15]는 사각형에 탄그람(七巧板, tangram)의 형태를 차용하여 응용하였다.



[그림 15] 단일체의 변화 '파생' 심볼마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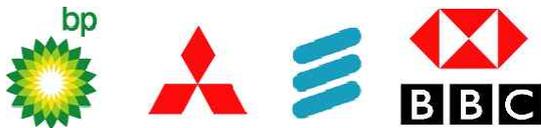
[그림 16] Pie Positioning Map\_단일체의 변화 분포

#### 4-1-3. 동일형(形)의 반복

하나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반복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형태가 중첩될 때 또는 동일한 형태가 강조를 위해 확대되거나 형태의 반복으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낼 때를 동일형의 반복이라 한다.

##### 1) 연속(連續, continuity)

반복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요소를 일정한 규칙적 배열을 통해 연속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속적 반복은 일정한 형식의 시각적 패턴을 만들어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키게 된다. 연속적 반복은 형태, 색채, 규칙적 배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띠며 나타난다.



[그림 17] 동일형의 반복 '연속' 심볼마크 사례

##### 2) 중첩(重疊, reiteration)

중첩은 '거듭해서 겹치거나 포개어짐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되풀이하는, 반복하는' 의미를 가진 중첩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동일형의 반복에서 중첩

의 표현은 두 개 이상의 형태가 서로 겹치거나 포갠을 통한 반복적 형태를 구현할 때를 나타낸다. 이러한 중첩의 과정은 단일 형태에서 나타나는 단순성을 보완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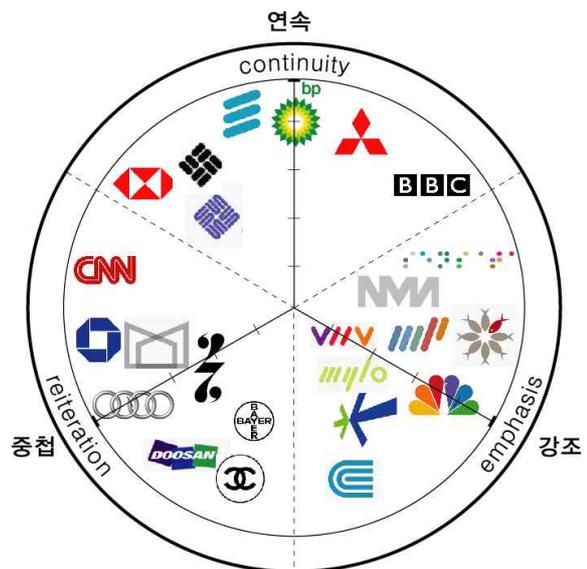
[그림 18] 동일형의 반복 '중첩' 심볼마크 사례

##### 3) 강조(強調, emphasis)

색채, 배치, 동일형의 규칙성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시각적 자극을 유도하는 것이다. 강조는 그 자체로 불균형의 상태로 인식되지만 미니멀리즘 심볼은 시각적 통합을 통해 조화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강조는 통일과 균형을 깨뜨려 산만해 질 수 있다.



[그림 19] 동일형의 반복 '강조' 심볼마크 사례



[그림 20] Pie Positioning Map\_동일형(形)의 반복 분포

#### 4-1-4. 사물의 본질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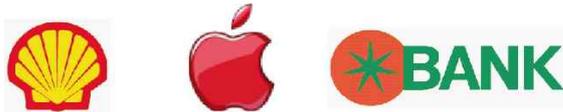
심볼디자인은 개발 방법론의 매개체가 천연(Natural form)의 소재이든, 인공(Industrial)의 기능적인 것이든, 미적 감동이든, 추상(Metaphysical)적인 것이든 조형 활동에는 실험적이고 연구적인 태도가 필

요한 것은 분명하다. 사물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하여 보다 본질적인 사물 그 자체의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여야 한다.

### 1) 천연(天然,natural)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Thales, BC 624~BC 546)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했다. 자연을 인식한다는 것은, 근대에서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이 자연에 밖으로부터 실험(實驗)이라는 '고문(拷問)'을 가하여 자백시켜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친밀한 동질자로서 이것을 안으로부터 직관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그리스에서는 자연은 인간이나 신(神)까지도 포괄하고 살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며 이러한 일종의 '범자연주의(汎自然主義)'가 밑바탕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존 리스킨은 '자연형태에 따르지 않는 디자인은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했다. 즉 자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형태가 디자인의 근원이어야 한다.

사물의 본질적 표현에서 천연은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소재를 의미한다. 즉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생물의 형태, 식물, 동물 등 **자연의 소재를 본질적 모티브로 하고 조형 활동을 통하여 단순한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그림 21] 사물의 본질적 표현 '천연' 심볼마크 사례

### 2) 추상(抽象,metaphysical)

추상은 대상으로서의 소여(所與)<sup>8)</sup> 전체로부터 특정성질이나 공통징표(共通徵表)를 분리하고, 골라내는 정신작용을 뜻하는데 추상(Metaphysical)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이념적 형태 즉 기하학적으로 취급하는 도형까지를 포함한다. 천연과 인공 형태의 직접적 지각에 반하는 형식을 추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이든 인공적이든 사물의 개념을 지칭하지만, 형태의 원형이 간접적으로 이해되는 추상성**을 말한다.

7)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7현인(七賢人)의 제1인자이며 밀레토스학파의 시조.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철학의 창시자이며 그 근원은 '물'이라고 하였다. 물을 생명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

8) 사유(思惟)에 의(依)하여 가공(加工)되지 않은 직접적(直接的)인 의식(意識) 내용(內容)



[그림 22] 사물의 본질적 표현 '추상' 심볼마크 사례

### 3) 인공(人工,indust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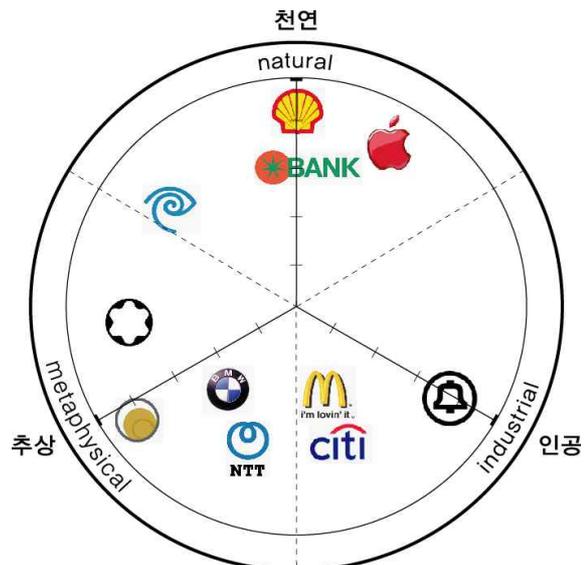
인공은 **인위적 형태. 즉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사물의 형태를 상징화**함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는 물건의 형태에 따라 동적 또는 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시대성을 갖는다.



[그림 23] 사물의 본질적 표현 '인공' 심볼마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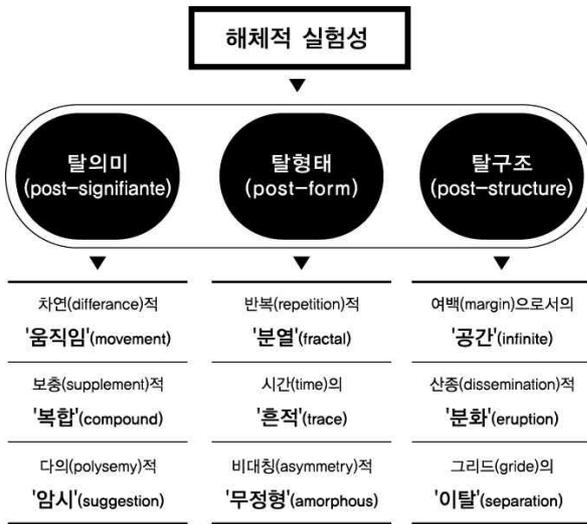
[그림 24] 씨티그룹의 심볼마크 모티베이션 변천



[그림 25] Pie Positioning Map\_사물의 본질적 표현 분포

## 4-2. 해체적 실험성

해체적 실험성의 분류체계 수립 및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은 데리다에 의해 실천되어진 차연(differance), 반복(repetition), 여백(margin), 흔적(trace), 산중(dissemination) 등의 포스트 구조주의적 글쓰기 개념들을 기본적인 구성의 틀로 삼았다. 여기에 몇 가지 개념을 보충하고 해체적 심볼들을 구분하는 부가적 의미의 보조적 개념들을 개발, 집목하여 분류한 체계도를 완성하였다.



[표 2] 해체적 실험성의 분류 체계도

### 4-2-1. 탈의미(post-signifiante)

로고스(logos)<sup>9)</sup> 중심적인 사고는 해체되었다. 여기에서 의미란 파토스(pathos)<sup>10)</sup>적 '의도된 의미의 확장', '확장된 의미'를 말한다. 즉 시각 아이덴티티에서 심볼은 함축적 의미를 담는 상징성을 강조해 왔다.

사물의 단순화, 의미의 복잡성, 무의미(단순추상)한 형태의 심볼 등 조형성과 규칙성의 정형화에 집착해 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상황에서는 정형성을 탈

9)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행위가 따라야 할 준칙, 이 법칙과 준칙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분별과 이성(理性)을 뜻한다. 사물의 '설명' '이유' '근거'를 뜻하며 사물의 정의(定義) · 논증(論證)을 뜻하기도 한다.

10) 철학상의 용어로 정념(情念) · 충동 · 정열 등으로 번역되며 로고스와 상대되는 말이다. 고대 그리스어 paschein(받다)에서 파생된 말로 근본적인 뜻은 '받은 상태'이다. 수동성 · 가변성이 내포되며 상황에 따라 인간의 마음이 받는 기분 · 정서를 총괄하여 표현한 말이다. 이성의 판단과는 다른 원천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쾌(快) '고(苦)'의 정(情)이 기분이 된다.

파토스는 각성적(覺醒的) 의식보다도 의식하(意識下)의 근원충동(根源衝動)에 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表層的) 또는 根源的) 존재상황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인간 존재의 근원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한 무의미한 작업들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해체된 관념은 의미를 부유하게 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해체된 의미는 같으면서도 다른 해체의 형식을 갖는다.

#### 1) 차연(differance)적 움직임(動勢, movement)

차연은 차이(변별성)와 지연이라는 의미로 나타나며 한 쪽만의 의미로는 환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연은 즉각적 연결의 의미론의 해석이 아니라 더 많은 상이한 체계를 임의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심볼마크의 해체적 표현에서 차연적 움직임은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차이에 따라 가능한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는 불확정성의 유동적 형태를 말한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과 관습적 차이, 사회적 관점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해석짓게 되는 서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연은 탈의미의 차원에서 불확정성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26] '차연적 움직임' 심볼마크 사례

#### 2) 보충(supplement)적 복합(複合, compound)

보충적 복합은 데리다의 '쉬프레망'이라는 개념의 두 가지 의미에 기반한다. 첫째,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체에 부가되는 일종의 '잉여' 이고 '과잉'이며 '충실하게 하는 또 하나의 충실함'이다.

둘째, '대행한다.'라는 의미이다. 즉 대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결여가 전제되기 때문이고 거기에 보충되어야 할 충실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개념의 충실함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개념이 동기화를 이루어 복합적인 상징을 내포하는 것을 보충적 복합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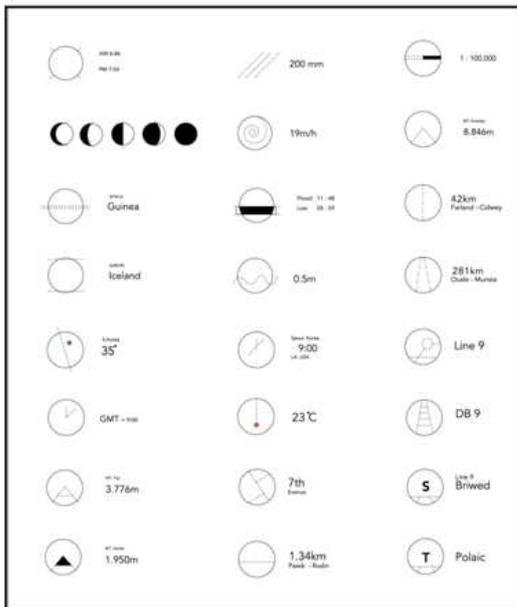
[그림 27] '보충적 복합' 심볼마크 사례

### 3) 다의(polysemy)적 암시(暗示,sugg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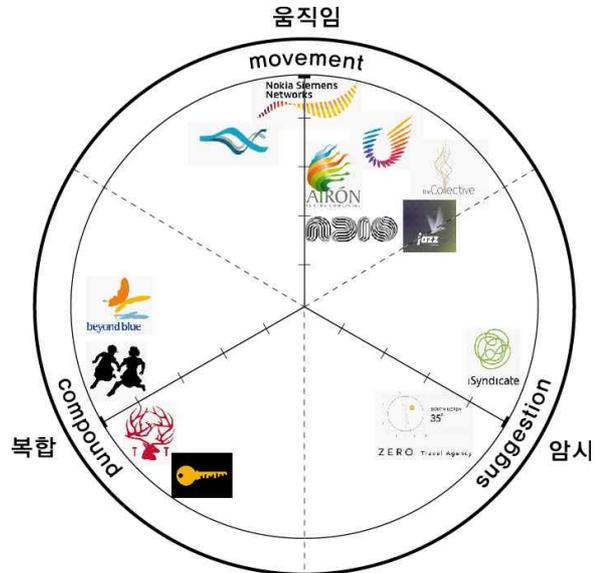
하나의 주제가 단일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의미를 암시하거나 수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유도하여 다양한 의미 전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을 때 탈의미에서 다의적 해석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의미의 해석과정에서 외연(外延,denotation)이나 내포(內包,connotation)를 동시에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8] 탈의미 '다의적 암시' 심볼마크와 의미해석



[그림 29] 탈의미 '다의적 암시' 심볼마크 전개-학생작



[그림 30] Pie Positioning Map\_탈의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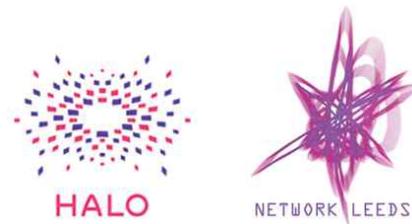
### 4-2-2. 탈형태(post-form)

탈형태는 구상이나 추상이나 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 둘은 형태의 변형이라는 동일한 수준으로 남는다.

'형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형태의 유희'이다. 기존의 관념적이고 정형적인 형태를 파괴, 단편화하거나 단순한 형태를 변형, 조합, 중첩, 회전, 전치(transposition)시키기도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를 탐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은 해체주의 관점의 주된 디자인 방법으로 기존의 형식적 틀을 거부한다.

#### 1) 반복(repetition)적 분열(分裂,fractal)

단순히 대상의 모방으로서의 반복이 아니다. 반복은 현재가 현재로서 부여되고 스스로의 존재가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기원(근원)에서부터 반복되어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탈형태의 반복은 **일정치 않은 형태의 연속과정에서 시간, 공간, 형태의 근원이 자유롭게 분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1] 탈형태 '반복적 분열' 심볼마크 사례

#### 2) 시간(time)의 흔적(痕迹,trace)

존재의 '현존성'이나 의식적 사고를 모두 무너뜨리는 이타성의 차이의 관계를 흔적이라 한다. 모든 사물은 현존이 아니라 차이로써 작용한다. 시간의 흔

적은 어떤 사물이 시간적으로 현존하는 것처럼 연속적 또는 시간의 차이에 의해 표현된 형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현존은 사물의 그 자체가 아니라 현존의 환영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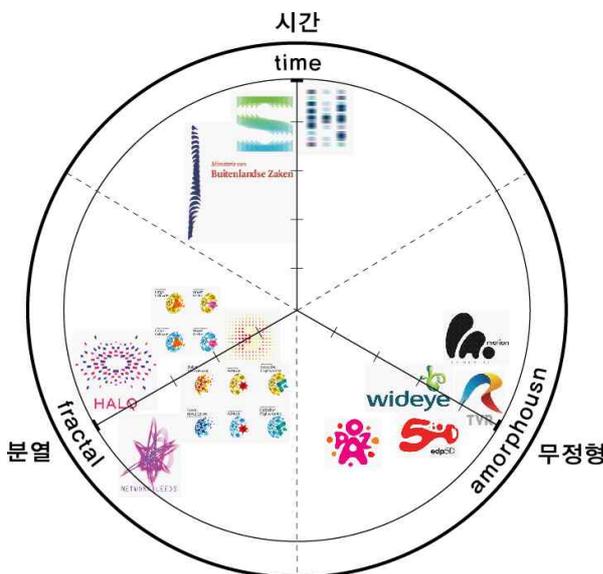
[그림 32] 탈형태 '시간의 흔적' 심볼마크 사례

### 3) 비대칭(asymmetry)적 무정형(無定型, amorphous)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정한 형식이나 모양이 일정치 않은 유기적 형태**로서 상·하 또는 좌, 우의 크기와 모양이 같지 않을 때 그 형태를 비대칭적 무정형이라 한다. 비대칭적 무정형은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기준으로 형성되지는 않지만 '비대칭의 대칭원리' 즉 중심은 있되 어느 곳에도 있지 않고 전체에 흩어져 있는 원리를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동감, 다양성, 융통성의 역동적 긴장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정한 비대칭적 형태나 혼돈스러운 복잡한 구성은 비대칭적 무정형의 균형과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그림 33] 탈형태 '비대칭적 무정형' 심볼마크 사례



[그림 34] Pie Positioning Map\_탈의미 분포

11) 마이클라이언. '해체론과 변증법',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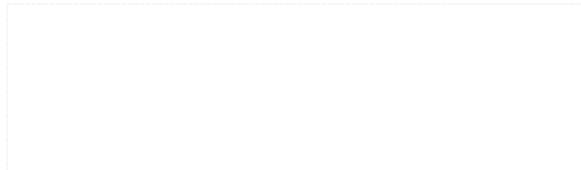
### 4-2-4. 탈구조(post-structure)

고정되지 않은 형식을 통해 즉각적 인식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그리드 없는 해체주의 표현들의 구조는 일정한 형태로서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고 서로 분열되거나 산중된다.

탈구조는 의미의 해석보다는 다양한 그래픽 요소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드 시스템에서 벗어나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는 탈구조의 형식이 오히려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1) 여백(margin)으로서의 공간(空間,infinite)

데리다는 여백을 '적극적 여백'과 '소극적 여백'으로 구별했다. 적극적 여백은 생산성과 관련되며 소극적 여백은 사이, 빈틈, 간격 등을 의미하는데 수용성과 연관된다. 그러나 둘 다 완결된 고정적 의미나 고유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생산'의 이중성을 띤 공간으로 본다.<sup>12)</sup> 여백은 막연하게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조형성을 지닌 생략된 공간이며,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은 약속된 공간**으로 정의한다. 주변의 공간과 시각요소와 관계하는 내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시각적 연상효과를 주며, 상상력을 확대시키는 수용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림 35] 탈구조 '여백으로서의 공간' 심볼마크 운용 사례

#### 2) 산중(dissemination)적 분화(分化,eruption)

산중은 종자가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 흩어 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산중의 개념을 '어떤 단어가 떨어져 나가 곳곳에 흩어지고 새로운 의미작용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라는 관점으로 보았다. '산중'은 모든 사항을 적어도 잠재적으로 보충하고 본질적으로 무한히 치환케 하는 이론인 동시에 실천이다.

12)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p25

이는 일정한 규칙에 지배받지 않은 개체들이 산발적으로 표현되어 의미적 형태를 나타내는 구조를 보여줄 때 산중적 분화라 한다.



[그림 36] 탈구조 '산중적 분화' 심볼마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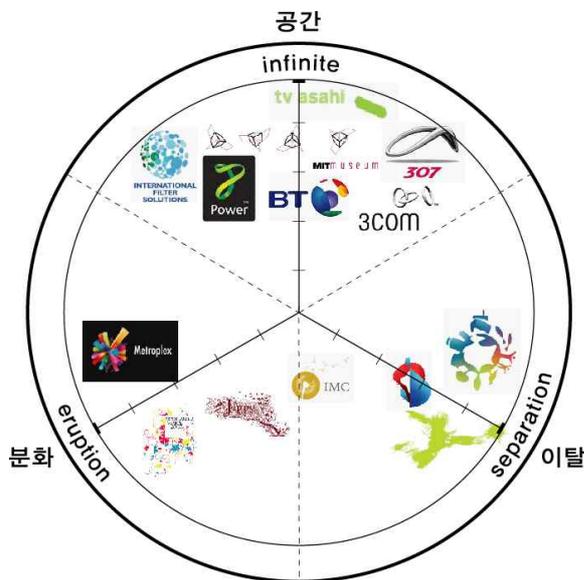
### 3) 그리드(grid)의 이탈(離脫, separation)

모더니즘의 산물인 그리드 시스템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균형, 대칭, 유사성, 지속성을 유지시켜주며 시각적 모호성을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그리드가 모든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요소의 배치에 있어 논리성을 제시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기능주의적 표준성을 제시한 모더니즘 사고의 그리드 시스템이 자유로운 감성적 표현을 기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표현의 양식은 탈 그리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드 시스템에서 눈에 띄게 이탈하거나 돌출시키는 것, 또는 인위적으로 그리드를 형성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기준을 파괴하는 것을 그리드의 이탈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림 37] 탈구조 '그리드의 이탈' 심볼마크 사례



[그림 39] Pie Positioning Map\_탈의미 분포

## 5. 결론

### 5.1. 연구 결론 및 의의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중심이 디지털화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급속도로 아날로그적 향수와 첨단과 미래지향성을 보여주는 디지털 이미지로 양분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시각형태의 상징화에 대한 모호성을 의식하여 심볼마크에 대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표현의 방법적 측면을 설명하고자 했다. 극소의 형태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적 경향과 탈의미, 탈형태, 탈구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해체적 실험성을 나타내는 심볼마크를 대상으로 체계화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 결과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서로 대응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단순과 응축, 또는 함축의 의미와 해체의 의미가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심볼마크에 있어서는 극도의 대조를 이룬다 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 경향의 심볼마크는 기능주의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개념적 추상화와 단순한 구조로 시각적 상징성을 추구하고 있다. 분류체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형의 순수성이다. 모든 형태의 근원을 이루고 형태 구성의 공통적 존재 단위로서 순수형태인 원형, 사각형, 삼각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단일체의 변화이다. 단일체가 최소화한 조형요소로 근원적 구조를 나타내며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압축, 변이, 파생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동일형의 반복이다. 하나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반복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형태가 중첩될 때 또는 동일한 형태가 강조를 위해 확대되거나 형태의 반복으로 설명되며 연속, 중첩, 강조로 나타난다.

넷째, 사물의 본질적 표현이다. 자연에서 얻어진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과 자연이든 인공적이든 사물의 개념을 지칭하지만, 형태의 원형이 간접적으로 이해되는 추상,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사물로 나타낼 때의 인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체적 실험성의 심볼마크는 디지털미디어의 시대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파편화되어가는 사회적 구조에서 뚜렷한 개성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의 체계는 개념적 부분, 형태적 부분, 구조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탈의미, 탈형태, 탈구조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하위체계를 수립하였다.

첫째, 탈의미적 차원은 차연적 움직임, 보충적 복합, 다의적 암시로 구분했다.

둘째, 탈형태의 차원은 반복적 분열, 시간의 혼적,

비대칭적 무정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탈구조적 차원이다. 여백으로서의 공간, 산 종적 분화, 그리드의 이탈로 구분하였다.

미니멀리즘 심볼마크는 의미전달에 있어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형태의 인지와 지각적 수용은 빠른 적응력을 보인다. 반면 해체적 실험성의 심볼마크의 사례는 개성화된 시대적 감수성을 담고 있으며 독창성과 창의적 이미지를 형성하나 시각의 지각적 수용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본 연구가 두 가지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인지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으로 남는다.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시각적 진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인간의 진화하는 지적 능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심볼마크에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적 경향은 시대성과 상관없이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징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표현방법으로 존속되고 있으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면서 시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디지털 이미지는 심볼마크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방법들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성을 표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적 실험성을 갖춘 방법 또한 표현과 응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차별성을 강조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전략의 유형으로서 시각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념적 토대와 분류체계가 기업이나 단체 또는 브랜드에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심볼마크를 개발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도입하는데 현실적 대안으로서 기초적 토대가 되고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심볼마크의 미니멀리즘 경향과 해체적 실험성의 표현 유형별 개념과 분류체계를 정립한 결과에 큰 의미를 있지만 분류체계에 대한 원리를 나타내고 설명하는 그림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각각의 분류 유형에 따른 사례 디자인 또한 이해를 위해 앞으로의 개발 과제로 남는다. 유형별 사례의 집적도를 나타낸 파이 포지셔닝 맵의 활용은 광범위한 영역에서는 정확한 집적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분야의 사례들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각의 사례들이 반드시 한 가지의 유형에만 해당하지 않고 몇 가지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는 점을 논하지 않은 것은 자칫 연구가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배제하였다.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정교한 분류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제시된 분류의 체계에 따라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응용사례 디자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각 분류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형요소에 대한 분석 및 인지차이를 규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분석도구 및 종합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형효.(1993). '테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 데이비드 베츨러, 정무정.(2003). '미니멀리즘', 현대미술운동총서
- 마이클라이언.(1994). '해체론과 변증법', 평민사
- 이한순 외.(2001).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 이합 핫산, 정정호, 이소영 역.(1991). '포스트모더니즘-현대문화와 문학이론', 한신문화사.
- 고세영.(2008). '아이코노그래피'의 원리를 적용한 디자인아이덴티티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김민정.(2007). '알레고리Allegory'의 관점으로 본 해체적 실험성과 해체 디자인 '형상언어'에 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 김수진.(2008). 기호학 이론을 활용한 심벌마크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대대학원.
- 김한웅.(2007). 선사상에 의한 Zen Style의 조형적 공감성 연구, 경희대대학원.
- 노영화.(2008). 원근법형성과 디지털시대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 신석규.(2005). '도식이론에 의한 기업 아이덴티티의 형.상.감 상호 관련성 연구', 패키지디자인학회.
- 정현정.(2003).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매거진의 탈 그리드(Grid)화에 관한 연구, 우송대 디자인대학원.